

# 김영록 지사, '청렴도 3위' 약속 지켜낼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발표가 임박하면서 매년 꼴찌 수준에 머물렀던 전남도의 성적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영록 지사가 민선 7기 최우선 화두로 청렴도 향상을 꼽고, '전국 3위'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차례 공언한 상황이어서 목표달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했고, 이르면 오는 5일, 늦어도 14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는 불필요한 사업 및 예산 낭비, 지연·학연을 통한 업무 처리 여부 등 15~20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내·외부

전남도 최근 5년간 최하위권 '수모' 순위 상승 사활 권익위, 이르면 5일 발표...태양광 비리 등 악재 변수

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종합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감점 반영해 최종 산출된다. 배점비율은 외부 60.1%+내부 25%+정책고객 14.9%-감점 최대 7%다.

부패 인식과 경험 및 통제, 업무정령 등을 골자로, 외부·정책평가는 전화, 내부는 모바일과 이메일로 진행됐다.

청렴도는 공직사회의 투명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지자체 및 지자체장 평가의 중요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전남도는 지난 2013년 13위, 2014년 13위, 2015년 16위, 2016년

17위, 2017년 13위 등 최근 5년간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청렴도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연말마다 고개를 숙였다.

특히 2016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당시 외부청렴도는 물론 도청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마저 낮아 충격의 강도를 더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후 전후해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다.

김 지사는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6월 민선7기 준비를 위한 도정 주요 현안 보고회에서 "도의 청렴도가 몇 번째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

고에 놀랐다"며 "도가 보고한 올해 청렴도 목표가 9위이고, 다음해가 3위인데, 그러지 말고 단번에 3위로 가고 그 다음해엔 1위로 가자"고 독려했다.

이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렴은 공직자의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자 청렴도는 공직자의 자존심이다"며 "청렴도 향상을 도정 최우선 혁신과제로 놓고 도청뿐 아니라 22개 시·군이 합심해서 청렴도 상위권인 1등급(1-3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올 한해 '청렴도 상위권 달성 특별대책'을 추진했다.

청렴신문고 운영과 청렴공감 특설치, 부패취약 검증위 설치, 특검감찰 활동 강화 등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운영이 대표적이다.

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등 범도민 반부패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비롯, 윈 스트라이크 아웃제, 성과상여금 3년간 해택 금지 등 부패 행위자 무관용 원칙도 도입했다.

외부고객 청렴도 평가 향상을 위해서는 청렴 웹툰 발송, 민원인 모니터링 '청렴해피콜' 등을 운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맑은 공직문화 정착과 부패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만큼 올해는 청렴도 상위권 달성 등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해 불거진 한전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에 연루된 전남도 공무원의 파면 등 내·외부 악재도 적잖아 올해 청렴도 조사 결과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근산 기자

## 투데이 뉴스

### 광주관광컨벤션뷰로 MICE 대상·컨퍼런스

18개 유관 기관 협약 체결

광주관광컨벤션뷰로(대표이사 이용현)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공동으로 4일부터 5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18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전라도 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사전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광주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마이스(MICE) 산업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 2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MICE 유관 18개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가치 실천 협약식'을 개최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협약한다.

4일에는 대한민국 MICE 대상 시상식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MICE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의 기조강연, 한국MICE관광학회 공동 '2019 MICE 산업 전망'과 'K-컨벤션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MICE TALK' 코너에는 황교익 칼럼니스트, 정철 카피라이터 등이 참가하여 융복합 산업인 MICE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한다. 5일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등 지역명소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 광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행사 6일 5·18기념문화센터서 기념식

광주시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념주간을 운영하고 오는 6일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시는 올해 시교육청,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광주인권회의, 광주 트라우마센터와 공동으로 기념식을 주최한다. 기념식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다.

5월 유가족들로 구성된 광주트라우마센터 '소나무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참여단체 소개 영상과 인권 토크쇼, 광주국제교류센터 'GIC 시민합창단' 공연으로 이어진다.

시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에 인권작품 수상작 전시회, 캘리그래피 인권 다짐 액자 만들기, 인권영화 상영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황애란 기자

## 광주시 산하기관장 물갈이 본격화

환경공단 이사장에 시장 선대위원장 내정

공석인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이윤섭 광주시장의 '측근'인 정상용 전 국회의원이 내정되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 됐다.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의 내년 1월 정기인사 앞두고 산하기관장으로 선거 캠프 인사 등이 임명되면서 이 시장이 취임 이후 강조한 공직사회의 강도 높은 혁신과 동떨어진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달 30일 서류, 면접 등을 거쳐 추천된 2명 가운데 정 전 의원을 최종 이사장 후보로 지명했다. 시의회는 오는 10일 인

사청문회를 열어 정 전 의원의 자격을 검증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 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정 전 의원은 이 시장과 동향인 함평 출신으로 13·14대(1988~1996년·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도왔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이 시장 선거 캠프에서 중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민선 6기인 2016년 6월 취임한 안용훈 전 이사장이 지난 10월 임기를 8개월 남겨두고 자진해 물러났다. /황애란 기자



백두산 호랑이 조형물 제막 3일 오전 광주 북구 우치공원 입구에서 KIA 타이거즈가 멸종위기종인 백두산 호랑이 보존 사업 홍보를 위해 기증한 조형물 제막식이 열렸다. /광주시 제공

## 무안공항 개항 11년만 연 이용객 50만명 돌파

무안국제공항 연간 이용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2021년 광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과 국제선 다양화 등 호재가 맞물려 내년 이용객 100만명 달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8분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한 항공편이 무안공항에 도착하면서 올해 이용객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이용객 50만명 돌파는 2007년

개항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이용객은 29만명에 그쳤다.

무안공항은 2021년 광주·무안공항 통합을 앞두고 정기노선 신규 취항과 증편 운항이 잇따르면서 이용객도 급증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국적 항공사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국내선 제주 1개 노선, 국제선 상하이·오사카·기타큐슈·오이다·타이베이·방콕·다낭·세부·코타키나발루 등 9개 노선을 유

치했다.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노선이 신규 취항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용객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편의 시책을 마련했다.

우선 농협과 협의를 거쳐 환전소 운영 시간을 야간·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용객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는 광주·목포에서 출발하는 노선버스를 1시간 30분 간격으로

정기 운행하고, 마지막 도착 항공기 운항 시간까지 노선버스를 연장 운행한다.

공항 통합에 대비한 기반·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활주로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노력, 이용객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 확충, 면세점 등 각종 편의시설 확대, 훈련용 항공기 이전 등을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도 연말까지 국제선 수화물 벨트 증설 등이 포함된 무안공항 개발 로드맵 수립 용역을 완료한다.

/정근산 기자

## 중소벤처 창업기업 지원 '달빛펀드' 300억 조성

광주시와 대구시가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창업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대구시, 광주은행, 대구은행, 산업은행과 3일 오후 2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달빛혁신산업성장지원펀드' (이하 '달빛펀드')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달빛펀드'는 광주와 대구지역에 있는 우수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에 3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내용이다. /황애란 기자

지역 일자리창출의 디딤돌  
유망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 기간: 2018. 1월 ~ 12월
- 추진방법: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 추진
- 지원규모: 관내 중소기업 4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8개사
  -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9개사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관리 지원: 10개사
  -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10개사
- 지원예산: 271,000천원
- 문의: 북구청 기업지원과(☎062-410-6577)

광주광역시북구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기간 2018 1월 ~ 12월

지원대상:
 

-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 중 청년 신규 고용기업
-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신청 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2개사
- 중소기업 특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개발, 특허기술사물레이아웃 지원: 10개사

문의: 광산구 사회경제과 062-960-8426

광산구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경제  
행복한 동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와 함께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